****

Company

Report

2021. 7. 22

|  |  |  |
| --- | --- | --- |
|  |  | **에이치케이이노엔(195940.KQ)** |
|  |  | 글로벌 바이오헬스 전문기업 |
|  |  |
|  |  |
|  |  | Company Overview |
| **Company Data**   |  |  | | --- | --- | | 액면가 | 500원 | | 공모주식수 | 10,117,000주 | | 주당공모가액 | 50,000원 ~ 59,000원 | | 공모예정금액 | 5,059억 원 ~ 5,969억 원 | | 상장예정주식수 | 28,904,499주 | | 예상시가총액 | 1조 4,452억 원~ 1조 7,054억 원 |   **IPO Schedule**   |  |  | | --- | --- | | 증권신고서 | 6월 30일(수) | | 수요예측(국내) | 7월 22일(목) ~26일(월) | | 청약 | 7월 29일(목)~30일(금) | | 상장일 | 8월 초 예정 |   대표주관사: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JP모간증권  IR컨설팅사 IR큐더스 |  | 에이치케이이노엔(이하 innon.N)은 전문의약품 및 HB&B(Health, Beauty and Beverage,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및 음료) 전문 기업임. 1984년 씨제이제일제당의 제약사업부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6년 한일약품을 인수하여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했음. 2014년 씨제이제일제당에서 물적분할하여 CJ헬스케어로 출범해 순환, 당뇨, 항암, 신장질환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ETC)과 원료의약품(API) 제품 분야에서 제약사로의 입지를 단단히 하며 성장하고 있음.  2018년 한국콜마그룹에 편입되었고, 2019년 국내 제30호 신약 ‘케이캡’을 출시했음. ‘케이캡’은 출시된지 6개월 만에 국내 시장점유율(M/S) 1위를 달성했고 2021년 3월 누적 처방실적 1,200억 원을 넘어서는 신화를 만들었음. 또한, 2020년 5월 미국 FDA 임상 1상 시험을 승인받았음. 현재 케이캡은 기술 수출이나 완제품 수출 형태로 해외 24개국에 진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inno.N은 2020년 매출의 86% 이상이 전문의약품 사업부에서 발생하지만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그리고 음료부문 사업도 확대중임. 지난해 건강 브랜드 뉴틴과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클레더마, 두피탈모케어 브랜드 스칼프메드 등을 출시했음.  케이캡으로 신약 개발 기술력을 입증 받은 inno.N은 향후 세포유전자치료제 및 백신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음. 백신 코프로모션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영업 채널 확대, 수액신공장 완공에 따른 본격적인 수액제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예정임. |
|  |
|  |
|  |
|  |
|  |
|  |
|  | Investment Highlight |
|  | **신약 바이오 R&D 역량**  inno.N은 신약/바이오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역량부터 임상개발 역량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임. 이를 기반으로 기존 출시된 의약품에 그치지 않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음.  동사는 국내를 선도하는 수준인 신약 임상의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해 실제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케이캡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이외에도 1986년 국내 최초로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했으며, 1998년 국내 최초 EPO 빈혈치료제인 에포카인을 개발했음.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inno.N은 항암, 호흡/항생제, 내분비/신장, 수액, 순환, 소화 부문 등 7개 이상의 치료영역 내 160여개 이상의 전문의약품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 전문의약품과 더불어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 컨디션 브랜드 산하의 숙취해소제와 헛개수, 르블렌 등 건강음료를 주요 제품으로 보유했음. 대표 제품은 대한민국 30호 신약인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케이캡과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컨디션과 헛개수가 있음. 동사는 대표 제품을 앞세워 지난해 매출 5,984억 원, 영업이익 870억 원을 기록하고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음.  동사는 이 외에도 비알콜성지방간질환 신약 임상 2상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임상 1상 등의 신약 개발도 진행하는 등 IPO를 앞두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있음.  Growth Momentum  **신규사업 확대**  inno.N은 케이캡의 성공에 이어 미래성장동력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 사업에 진출했음. 세포유전자치료제 중 시장 접근성이 높은 면역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 경기도에 관련 생산 시설을 구축했으며, 혈액암과 고형암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전문 인력을 확보했음. 현재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최신 기술 및 과제들을 공동 또는 자체 개발하며 파이프라인을 보강하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기술도입 추진을 통해 후보물질 도입 및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백신 및 수액사업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동사는 최근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1상을 신청하기도 했음. 또한 수족구 2가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2018년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엔테로바이러스 71형 백신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 받아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음. 개발 성공시 세계 최초로 두개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2가 수족구 백신의 개발을 완료하는 것임.  **글로벌 진출 가속화**  inno.N은 2015년 중국 케이캡 기술 수출을 시작으로 베트남, 중남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몽골, 싱가포르 등에 기술/완제품 수출 형태로 국내 포함 25개국에 진출했음. 특히 중국에서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CFDA 허가 심사 절차를 밟고 있음. 소화성 궤양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현지에서는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음.  동사는 2020년 상반기 HB&B 사업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신규 진출했으며 3분기 탈모, 두피케어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음. 글로벌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사업을 개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중국, 몽골,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거점 국가에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을 유통 판매하고 있음. 베트남 시장의 경우 2020년 컨디션 브랜드를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  |
|  |
|  |
|  |
|  |
|  |
| **한정선, 이사**  02. 6011. 2000 (#212)  [jshan@irkudos.co.kr](mailto:jshan@irkudos.co.kr)  **안재희, 선임 컨설턴트**  02. 6011. 2000 (#242)  jaehee@irkudos.co.kr |

|  |  |  |
| --- | --- | --- |
| **도표1. 회사 개요** |  | **도표2. 공모 후 주주구성** |
|  |  |  |
| |  |  | | --- | --- | | **회사명** |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강석희 | | **설립일** | 2014년 | | **임직원수** | 1.588명 | | **사업분야** | 전문의약품 사업 및 HB&B사업 | | **주요사업** | 의약품의 제조판매업, 도매업, 수출입업  음료수 및 다류 제조, 가공, 소분 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 | |  |  |
| 자료 : 증권신고서 기준, 에이치케이이노엔, IR KUDOS |  | 자료 : 에이치케이이노엔, IR KUDOS  주1) 주식수 및 공모 지분율은 상장예정 주식수(보통주) 기준임  주2) 미래에셋PE(오딘제10차(유)), H&Q코리아(메디카홀딩스(유)), 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헬스케어(유)) |
| |  | | --- | | **도표3. 에이치케이이노엔 R&D 파이프라인** | |  | |  | |  | | 자료: 에이치케이이노엔 , IR KUDO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표5.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 단위: 원 | | |  |  |  | | --- | --- | --- | | **구분** | **제7기 1분기** | **제8기 1분기** | | **매출액** | **132,807,608,838** | **186,838,260,894** | | 매출원가 | 61,313,757,100 | 112,346,685,495 | | 매출총이익 | 71,493,851,738 | 74,491,575,399 | | 판매비와관리비 | 58,176,394,017 | 61,456,952,688 | | **영업이익** | **13,317,457,721** | **13,034,622,71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214,494,247 | 7,833,625,678 | | 법인세비용 | 3,124,174,254 | (482,873,452) | | **당기순이익** | **3,090,319,993** | **8,316,499,130** | | |
| 주: K-IFRS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 제7기 1분기의 경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제7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제8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  |  |  |  | | --- | --- | --- | --- | --- | | **도표6.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단위: 원 | | | |  | | **구분** | **제7기** | **제8기 1분기말** | | 유동자산 | 233,616,518,816 | 304,453,914,367 | | 비유동자산 | 1,381,051,904,417 | 1,378,800,009,196 | | **자산총계** | **1,614,668,423,233** | **1,683,253,923,563** | | 유동부채 | 312,883,098,043 | 372,336,578,255 | | 비유동부채 | 558,555,491,545 | 559,367,152,797 | | **부채총계** | **871,438,589,588** | **931,703,731,052** | | 자본금 | 11,094,460,000 | 11,094,46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135,787,932,612 | 135,787,932,612 | | 기타의자본항목 | 565,828,954,627 | 565,832,814,363 | | 이익잉여금 | 30,518,486,406 | 38,834,985,536 | | **자본총계** | **743,229,833,645** | **751,550,192,511** |   주: K-IFRS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  제7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8기 2021년 1분기말 3월 31일 현재 |

|  |
| --- |
| **Compliance Notice** |
|  |
| 본 자료를 작성한 컨설턴트는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됐음을 확인합니다.본 자료를 작성한 컨설턴트는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는 해당 기업과 IPO IPR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발간일 기준)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본 자료는 분석대상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닌 만큼 분석대상 종목에 대해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 컨설턴트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